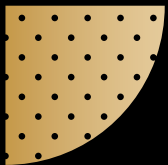


예술과 만남

10+11 2022 Vol.158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이달의 레퍼토리
연속성과 다양성의 전통
국내 클래식 페스티벌의 지향점

연출과의 만남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예술감독 송영훈

이달의 아티스트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다
피아니스트 박재홍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컬처로드
친환경 시대,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힘

다시 삶이 일렁이는 무대

극(劇)에 온전히 빠져

전혀 다른 인물이 된 그는

더 이상 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무대에 오를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

잠시 떠나있었지만,

흔들렸던 삶의 추를 다시 잡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손꼽아 기다려온 만남을 준비하는

열기가 모여 무대는 형형색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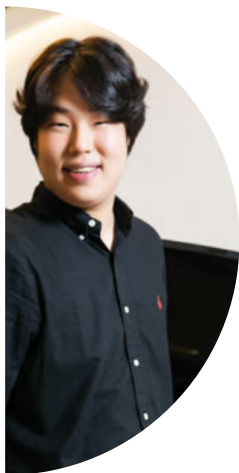
새로운 빛깔로 일렁인다



격월간
발행처
발행인
편집장
기획·취재
주소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기획·디자인
ISSN

예술과만남 2022년 10+11월호
경기아트센터
신명호
임선미
허명현, 탁나희,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031-230-3242
magazine@ggac.or.kr
www.ggac.or.kr
방형식디자인
2234-5949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GGAC's Theme

- 08** 오(oh),피니언
이머시브 시어터,
무엇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 12** 이달의 레퍼토리
연속성과 다양성의 전통
국내 클래식 페스티벌의 지향점
- 16** 연출과의 만남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예술감독 송영훈
- 20** 이달의 아티스트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다
피아니스트 박재홍
- 24** 내다보기
만추, 감성 충전하기 좋은 독서 여행



On Stage

- 28**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미생에서 완생으로 무르익는 클래식의 향연
- 30** 프리뷰, 둘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The New Beginning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 32** 프리뷰, 셋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본(本)>
시대를 초월한 우리네 정서를 몸으로 그리다
- 34** 리뷰, 하나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당신의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을 담고 있나요?
- 36** 리뷰, 둘
파보 예르비 &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연주자의 신뢰가 빛어낸 '시벨리우스 감동'



ONE Talk

-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림이 왜 예술일까?
- 44** 트윙작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인간의 시대가 온다
- 46** 컬처로드
친환경 시대,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힘
- 50** 예술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 위기일까 기회일까
-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s Pick

- 58** GGAC NOW
일터와 가정을 채우는 그녀들의 행복 일기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문지혜 PD·전현희 PD
- 60** 문화나눔·쉼터
<2022 경기도 예술회복 지원사업>
지역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디딤돌
-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 64** CALENDAR
2022년 10~11월 주요 공연 일정
- 66**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관객과

GGAC's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다채로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문화예술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Theme

무대의 긴장과 객석의 설렘이 만나는 곳,
단순히 창작과 향유를 잇는 역할을 넘어
관객과 센터 사이의 새로운 소통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킨다.

센터
사이

이머시브 시어터 *

무엇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긴 터널을 지나 들숨을 쉬듯 극장 문은 다시 열렸고, 더불어 새로운 기운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그런데 하나 더.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목을 끈다. 그것은 진취적이며 실험적이란 점에서 신선하다. 관객이 공연의 주체가 되는 공연, 팬데믹 이전 <슬립 노 모어>의 전 세계적 성공으로 이미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머시브 시어터, 무엇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 이머시브 시어터 (IMMERSIVE THEATER) :
관객이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를 수동적으로
감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하는 연극이나 공연을 뜻한다.

1 ONE DAY, MATBE 언젠가
2 지.라운드_창작그룹노니



관객의 위치를

변화시킨

이머시브 시어터

전통적인 연극에서 관객은 의미의 수용자 역할에 머물렀다. 무대와 객석 사이 거리는 견고한 벽으로 가로막힌 듯 관객은 무대를, 무대에서 들려 주는 이야기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들을 뿐 신성한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는 브레히트(Bertolt Brecht)였다. 열린 결말을 통 브레히트에 이르러 비로소 관객은 바라보는 존재에서 사유하는 존재로 바

이머시브 시어터에 이르러 관객은 의미를 창조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머시브 시어터는 관객 참여를 극대화해 이야기를 여럿으로 만들거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연을 체험한다. 이것은 관객 역할의 확장 혹은 진화일까.

혹자는 말하지 모른다. 이머시브 시어터 이전에도 관객은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이다. 의미를 완성하며 상상하는 존재로서 말이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연극의 현장성과 일회성 속에서 관객은 분명히 연극 생성의 본질적 요소다. 그러나 이머시브 시어터에서 관객은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위치 변화를 보여준다.

무대와 분리된 객석에 암전히 앉아있는 대신에 관객은 건너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며 객석에 앉아있는 경우라도 예전과 달라졌다. 한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파악이 가능한 공연은 엄밀히 말해 이머시브 시어터가 아니다. 이머시브 시어터는 양면의 객석 혹은 다양한 방향에서의 다초점을 요구한다.

취향을 쫓는
새로운
관객의 유입

이머시브 시어터는 능동적인 관객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연극에서 예술가의 욕망,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관객이 파악하는 게 예술 체험이었다면, 이머시브 시어터는 관객의 욕망을 중요시한다. 관객은 이야기의 전개를 결정하거나 무엇을 느끼고 경험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예술가는 관객에게 허용되는 자유가 늘어난 만큼 관객이 어디까지를 체험할지 틀을 만든다. 관객의 예상치 못하는 반응까지를 생각하며 작품을 구성해야 한다. 관객의 욕망을 작품의 중앙에 놓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는 실제로 관객들의 이동 경로까지 계산한 장면 만들기 등으로 나타난다. 능동적 관객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은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좀 더 수평한 구조로 바뀌었다 말하기도 한다.

이머시브 시어터의 이러한 특성이 한국의 젊은 관객, 특히 'MZ 세대'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대와 잘 맞을 것이다. 'MZ 세대'는 흔히 자기 취향이 분명하며 취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세대라 알려져 있다. '취향 소비'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이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가치의 일종이며 행동의 기준이 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기꺼이 파고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시키기도 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머시브 시어터의 능동성과 주제성은 기존 예술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자극과 활력을 줄 것이다.



3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게
이뤄지는 실험들

이머시브 시어터 창작자들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큰 관심을 둔다. <ONE DAY, MATBE 언젠가>(트리스탄 샵스 연출, 2013)는 광주 한 폐교로 들어가 그 안의 공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극 중 세상을 위해 쇼핑물, 제사를 지내는 방, 골목 등 새로운 공간들이 설계되었고, 쇼핑 스트리트에서는 공연 중 실제로 관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위대한 개츠비>(알렉산더 라이트 연출, 2021)는 서울 뮤지엄 1, 2층에 재즈바, 약국, 내실, 개츠비의 서재, 데이지의 방 등 개츠비 맨션을 지었다. 관객들은 개츠비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로 화려한 복장을 입고 오도록 미리 안내되었으며, 춤을 추고 음료를 마시며 파티에 참석했다. <지.라운드>(김경희 연출, 2018)는 문화비축기지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뤄졌다. 공간은 원래 등유를 보관하던 시설로 탱크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하고 있는 점이 특성이다.

<닐스의 모험을 위한 인덱스>(김보람 연출, 2018)는 우란문화재단 전시장 곳곳을 이동하며 진행된다. 헤드폰을 받은 관객들이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 지시에 따라 동선을 결정한다. <어쩔 수 없는 막, 다른 길>(김태형 연출, 2021)은 전태일 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전태일 기념관 1층부터 건물 옥상까지 두루 활용한다. 관객은 관광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되어 오늘날 노동자로서 전태일 기념관을 돌아다니며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 속에 놓이게 된다.

극장에서 이뤄지되 극장을 새롭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극장을 팝니다>(전윤환 연출, 2020)는 부평아트센터에서 이뤄졌지만, 극장, 복도, 분장실, 옥상 등 관객들은 평소에 찾지 않았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극장을 탐색하게 된다. <굳빠이 이상>(오루피나 연출, 2017)은 셀 스테이지에서 공연되었다. 그러나 셀 스테이지 블랙박스 공간의 무대와 객석 구분을 없애고 벽을 강렬한 주황색의 비현실적인 색상으로 꾸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가미했다. 관객들도 가면을 쓰고 비현실적 분위기에 동참한다.



4

복합적이며
감각적인 체험을
목표로 한다

이머시브(Immersive)는 '담그다'란 뜻이다. 최근 이머시브 시어터는 '몰입형 공연'이란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그만큼 관객 체험이 복합적이며 감각적이란 의미다. 이머시브 시어터 관객은 건거나 자유롭게 움직인다. 혹은 사운드를 강조하거나 게임 등의 기술과 결합해 관객을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자극한다. 가만히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빠지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체험이 이뤄질 것 같지 않은가.

이머시브 시어터가 주는 체험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견해도 존재한다. 이것은 일찍이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가 주장한 '해방된 주체'와도 연결된다. 이머시브 시어터에서 관객은 예술가/관객, 창조자/수용자 등으로 분할되고 이분화된 정체성을 넘어 자유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존재함을 쾌락적으로 감각하게 된다.

<슬립 노 모어>의 성공으로 이머시브 시어터는 무조건 <슬립 노 모어>의 형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유럽은 이머시브 시어터란 용어 대신 관객 참여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도 한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 이머시브 공연이 이뤄졌다. 해외 창작진의 내한 공연뿐 아니라 국내 창작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다면, 더 많은 이머시브 공연들이 제작될 것이 기대된다. ◀

글 — 엄현희

연극평론가. 평론집 <기록, 성장, 연극>(2018), <연극비평과 연극경험>(2020)을 펴냈다. 상업연극에 대한 연구와 이머시브 시어터 창작진 인터뷰 모음집을 준비하고 있다.



5

연속성과 다양성의 전통

국내 클래식 페스티벌의 지향점

‘페스티벌(Festival)’ 즉 ‘축제’란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장르의 축제가 존재한다. 그 중 클래식 음악 축제는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연속성과 확장성,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빛깔 좋은 와인처럼 오랜 시간 숙성된 축제들의 이름을 애호가들은 신뢰한다. 그래서 성공을 거뒀은 이름난 축제들은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티켓을 알아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클래식 페스티벌 현황을 살펴보자.



©예술의전당



©통영국제음악재단

클래식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음악제

국내 클래식 음악축제 중 가장 오래된 시리즈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일 것이다.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맞아 시작해 벌써 34회를 맞이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하며 여기서 펼친 연주 수준이 악단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주로 시도단위 지역의 이름을 딴 국공립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참여했으나, 민간 오케스트라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일 개막해 24일 폐막한 올해 축제는 전국 30개 오케스트라가 참가했다.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시향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연주가 빛을 발했다. 협연자 중에는 대전시향과 모차르트 협주곡 13번을 협연한 피아니스트 김수연, 원주시향과 코플랜드 클라리넷 협주곡을 협연한 김상윤 등이 돋보였다.

경남 통영시에서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 시작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통영 출신 작곡가

윤이상을 중심으로 차별화의 가치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2002년만 해도 통영은 관광도시보다 어촌에 가까웠다. 2004~2005년경 거제에서 넘어온 조선업 기지가 됐고 2008~2009년에 활황을 맞이했다. 이후 시들해진 조선업을 관광업이 대체했다. 현재는 케이블카와 루지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통영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까지 국제음악제가 한 축을 담당했다.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이어갔던 통영국제음악제는 2013년 통영국제음악당이 건립되고 2014년 독일 출신 플로리안 리임 대표가 부임하면서 전기를 맞이했다. 리임 대표는 자신의 다져진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연주자 섭외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작년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사무국장과 예술기획본부장을 역임하며 실무를 담당해왔던 이용민 신임 사장이 부임하고진은숙 예술감독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며 더욱 탄탄해진 모양새다.



2022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포스터

멀리 보고 길게 나아가는 장기 프로젝트

평창대관령음악제는 2004년 용평리조트에서 처음 열렸다. 아스펜 음악제를 벤치마킹해 연주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음악제로 기획됐다.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 강효와 세종솔로이스츠를 주축으로 축제를 꾸려갔다. 당시 연주가 펼쳐지던 눈마을홀은 전용홀이 아니어서 마이크 증폭에 의존해야 했으니 2010년 알펜시아 콘서트홀이 개관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듬해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축제는 35,000여 명의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16년부터는 대관령겨울음악제가 시작돼 재즈, 월드뮤직 등 장르도 다양화해 공연했다. 2018년 제3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해 성공적으로 이끈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음악제의 첫 연중 시리즈 '강원의 사계'를 기획했다. 기존의 7월말 8월초를 피해 7월 초중순에 개최된 올해는 로베르토 곤잘레스 몬하스 지휘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권민석 지휘, 평창 바로크 앙상블의 공연 등이 호평 받았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는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2006년 시작됐다. 매년 서울의 봄을 실내악의 아기자기하고 고매한 예술성으로 물들여 온 이 축제는 해마다 상징적인 테마로 차별성을 부여했다. 2006년 '동서양의 만남'부터 올해 'Cellissimo!'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강동석 예술감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전통적이거나 도전적인 레퍼토리의 실내악을 연주하며 서울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대관령음악제





©대구오페라하우스

계절, 장소 등 특색을 담아 차별화

롯데콘서트홀에서 주최하는 클래식 레볼루션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 최초의 여름 축제로 손꼽힌다. 2020년 개관 4주년 기념 '클래식 레볼루션 2020 베토벤'을 출발점으로 8월이 되면 약 열흘간 리사이틀부터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펼친다.

작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피아졸라와 독일의 요하네스 브람스를 조망했고, 올해는 멘델스존과 코른골트를 주제로 시원한 여름의 음악향을 가동했다. 특히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멘델스존 협주곡 1번을 협연한 김선욱 지휘, KBS 교향악단의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역시 본격 여름 음악제인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는 예술의전당이 제작사, 기획사, 매니지먼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추진했다. 2021년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NEW HOPE'를 주제로 처음 열렸고 올해 2회 축제가 개최됐다. 두 개 극장에서 사흘간 진행된 작년에 비해 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인촌아트홀을 풀가동하며 규모가 커졌다. 오프닝과 피날레를 장식하는 지휘자 김유원,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비올리스트 신경식을 비롯해 16개 개인 및 단체 참가팀이 모두 공모로 선정됐다.

2003년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기반으로 출발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19회를

맞은 올해는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광주시립오페라단과 합작한 오페라 '투란도트(9.23-24)'로 개막,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10.7-8)'를 거쳐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로 이어진다. 독일 만하임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230명을 초청한 바그너 악극의 공연 소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축제는 국립오페라단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10.28-29)'와 영남오페라단의 로시니 '신데렐라(11.4-5)', 윤이상 오페라 '심청(11.18-19)'으로 이어진다. 부산 역시 대구처럼 베뉴(venue, 장소, 개최지)가 축제의 동인이 되는 곳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준공에 앞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클래식음악제 프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프리콘서트의 부제는 '대전환 그리고 포용(Great Transformation & Embrace)'이다. 유럽 콘서트홀 무대에 서온 오충근 예술감독을 필두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한국인 최초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 최연소 2위 입상)이 수석부예술감독을 맡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리스트 김규현(노부스콰르텟 비올리스트),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유라시아오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등이 부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이경선(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송영훈(첼로), 송지원(바이올린) 외에도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들을 축제 기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

정체성 확립으로 축제의 브랜드화

경기도의 축제로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실내악축제'를 들 수 있다. 예술감독 송영훈과 함께 제임스 배럴릿, 리웨이 친, 클래스 군나르손 등 유수의 연주자가 거쳐 갔다. 2022년에는 침체된 예술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속하고자 '경기클래식페스티벌'로 새롭게 도약한다.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축제'에 걸맞게 7일간의 대극장 공연, 야외무대 클래식 버스킹, 소극장 연주회, 푸드트럭이 있는 광장축제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감독 첼리스트 송영훈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김계희, 윤소영, 후미야키 미우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비올리스트 신경식, 김상진 첼리스트 이호찬,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 바수니스트 이은호, 호르니스트 유해리, 홍석원이 지휘하는 코리아콥오케스트라가 대극장의 메인 축제를 장식한다.

"뭉치면 강하다"는 말은 축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축제기간 동안 공연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패키지가 될 때 개별적인 공연의 만족도가 축제 전체로 향할 수 있다. 축제를 브랜드화하여 친근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축제기간 동안 공연에 공통성과 다양성을 부여해 연속 관람을 유도하는 것도 기획자들의 할 일이다. 아울러 각 축제 담당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애써 준비한 축제가 서로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상생과 윈-윈을 도모하며 전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틀을 갖춘 음악축제들이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계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실내악축제



글 —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집에서 음악을 듣고 글을 쓴다. 학구적이지만 유리된 글보다 음악 애호가인 한 사람으로서 감동의 온기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를 지향한다.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예술감독 송영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글 편집부
사진 김지원

깊어가는 가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으로 기억될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의 개막이 성큼 다가왔다. 페스티벌의 전신인 경기실내악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 이어, 이번 페스티벌 역시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송영훈을 만났다. 바쁜 일정 가운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음악의 힘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기분 좋은 떨림이 전해졌다.

마음 깊은 곳의

울림 속으로

지난 3년간 예술감독으로서 송영훈은 경험과 비전, 사명감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클래식 축제의 실현 가능성을 관계자와 청중에게 안겨줬다. 특히 기획, 섭외, 연주 등 다양한 역할을 도맡아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2019년 예술감독이라는 중책을 맡은 뒤 이어온 시도들은 결국 대중들이 클래식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작년까지는 베토벤, 모차르트 등 대중친화적인 곡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는데, 올해부터는 비교적 현대의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물론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매년 조금씩 관객 여러분을 클래식 음악의 깊은 곳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개최된 경기실내악축제에서 외연을 확장한 제1회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은 ‘새로운 시작(The New Beginning)’을 주제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야외극장에서 관객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그 이름과 주제에서부터 알 수 있듯 실내악과는 또 다른 클래식의 매력으로 채운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처음으로 관현악(Orchestra)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개막 공연인 10일과 11일을 관현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함께할 목관 5중주 두 팀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팀입니다.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과 연주기회를 나눌 수 있게 된 점도 참 뜻깊은 거 같아요.”

예술에 있어 다름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실내악과 관현악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냐가 아닌 어떻게 서로 다른지 찾는 것 역시 공연장을 찾을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송영훈

Young Song





Art Director Young Song Gyeonggi Classic Festival

시간의 흐름 속

자연스레 젖어들길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의미에 걸맞게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은 관객과 관객, 객석과 무대 그리고 연주자와 연주자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연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송영훈 예술감독은 모든 만남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레퍼토리 선정은 물론 연주자 섭외도 세심하게 준비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한데 모으는데 의미를 두기보다,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일치해야 이상불도 잘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페스티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실내악을 좋아하는 것부터 소극장, 대극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레퍼토리를 정말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연주자들이 함께 합니다.”

조성호(클라리넷), 유해리(호른), 이호찬(첼로), 송지원·윤소영·미우라 후미아키(바이올린), 일리아 라쉬코프스키(피아노) 등 ‘깊은 울림을 주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양질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페스티벌 한참 전부터 섭외에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커진 무대만큼 양과 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음악제가 기대됐다.

화려하면서도 알찬 연주진 뿐 아니라 공연 프로그램 중 ‘슈베르트-8중주, 졸탄 코다이-현악 2중주, 안톤 아렌스키-현악 4중주’ 등 대중에게는 다소 친숙하지 않은 대곡들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송영훈 예술감독은 4년간 축제를 함께한 일원으로서, 이제 관객들도 이런 곡들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거란 마음으로 선곡하게 되었다고.

“어려운 책이 시작은 힘들지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읽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책일수록 두고두고 보게 되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음악도 그런 깊이와 묘미가 있어요. 첫 시작은 어렵겠지만 접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과정을 거친 청중들이 페스티벌을 꾸준히 찾지 않을까요?”

경기아트센터와 같은 단체의 지원,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클래식에 자연스레 젖어드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지역 음악 축제가 온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함께하길

독주회, 협연, 실내악 무대를 누비는 현역 첼리스트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틈틈이 방방곡곡의 연주회를 소화하는가 하면 라디오 DJ를 비롯한 대외활동 등으로 일정이 빼곡하다. 체력과 집중력의 난관이 발목을 잡을 법하지만 정작 그는 끄떡없어 보인다.

“당연히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예술감독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아요. 관객들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시간, 또 연주자들과 음악을 나눴던 시간,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분들이 쏟아부은 열정, 이렇게 다 같이 하나의 꿈을 키워가는 마음들이 너무 고맙고 제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술감독을 맡을 당시만 해도 ‘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는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커진단다. 정(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책임감과 애정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공연계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작년 실내악축제를 준비할 때도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결국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는데 공연장을 찾아와 호응해주는 관객분들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술은 시대와 무관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삶이 계속되는 한 음악은 계속되는 법. 송영훈 예술감독을 비롯한 연주자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은 예술의 본질로 돌아가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제 남은 건 맛있게 차려진 클래식의 만찬을 마음껏 즐겨줄 청중들의 참여 일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다시 한 아이의 부모가 될 때까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을 함께하는 축제로 오를수록 곁에 머물길 기원한다. ◀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다

피아니스트 박재홍

글 편집부
사진 강권선

지금 한국의 클래식계에는 새로운 물결이 당도했다. 세계적 권위의 국제 콩쿠르에서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한국 클래식 역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지난해 부조니 콩쿠르 우승과 함께 그 물결의 세기를 더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을 만났다. 연주자로서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유롭고 단단했다.

전하고 싶은 진심을 연주에 담아

“안녕하세요, 피아노 치는 박재홍입니다.” 국내 연주자에게서 보기 드문 커다란 체구와 그에 비례하는 열정적인 연주로 무대를 채우는 피아니스트의 자기소개는 예상과 달리 담백하기 그지없었다. ‘피아니스트이기 전에 그저 피아노 치는 것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고 싶다’는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서 피아노와 연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다.

아 같은 소박함과는 반대로 박재홍은 명실상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만 15세에 아르헨티나에서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 활동은 물론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그는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작품 연주상, 실내악 연주상 등 4개 부문의 특별상을 석권하며 주목받는 신예가 아닌 세계적인 대형 피아니스트의 등장을 세상에 알렸다.

“사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이었어요. 수상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연주에 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지휘자님 그리고 오케스트라와의 교감이 정말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무대를 마쳤을 때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연주자로서 그런 경험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조니 콩쿠르 측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연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마음은 당시 선곡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이다. 긴 연주시간으로 악명 높은 3악장 때문에 콩쿠르 무대에 잘 오르지 않는 곡이지만 그는 관객과 나누고 싶었고, 결과적으로 그 진심이 1위의 자리로 이끌었다.



K-Classic Power Pianist Park Jaehong

피아노와 사람, 함께 맞추어 가는 과정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부조니 콩쿠르 우승 이후, 이 젊은 연주자는 자연스럽게 세계 곳곳에서 쇄도하는 연주 요청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다. 연주 실력과는 별개로 새로운 장소와 환경, 사람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악기를 들고 다닐 수 없는 특성상, 매 공연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은 피아니스트의 숙명이다.

“말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혹은 잘 조련된 말을 만나는 것처럼 연습을 하다 보면 피아노가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래된 피아노에서는 따뜻함과 연륜이 느껴지고, 새로운 피아노는 힘 있고 풍성한 감정이 전해지듯 마음을 열고 맞춰가는 만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 공연장을 찾는 관객과의 교감 역시 중요한 법. 국적을 떠나 저마다 각자의 상황에서 연주를 감상하는 관객에게 박재홍은 자신이 원하는 연주를 들려주는 데 집중한다.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교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눈높이가 맞는 시점에 다가서게 된단다.

김수연, 최하영, 임윤찬 등 최근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잇달아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K-클래식의 높아진 위상을 과연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해외 연주회를 다니다 보면 관계자분들은 물론 청중들의 관심 등에서 달라진 온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죠. 저 역시 한국인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마음 한편으로 남다른 책임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는 이 같은 성과의 비결을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새로운 세대의 곡을 해석하는 재치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꼽았다.

“예전과는 반대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클래식의 본 고장인 유럽 학생들이 찾을 만큼 한국만의 차별화된 클래식 교육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보다
피아노 치는 박재홍이라고 불릴 때
가장 좋다는 그는 건반 위
자신만의 음악,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반 위에서 이어가는 새로운 여정

젊은 연주자들의 콩쿠르 우승 덕분인지, 국내에서도 클래식을 향유하는 문화가 전과 다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젊은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클래식의 대중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클래식은 쉬운 음악일 수 없고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는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계에서는 쉽게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객분들이 조금의 관심과 관람 전 조금의 공부를 곁들여 주신다면 진정한 클래식의 대중화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박재홍은 10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객과의 세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Five for Five', 그리고 11월 '경기 피아노 페스티벌'에 이은 이번 무대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바로 거장 정명훈 지휘자와의 만남 때문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릴 때부터 정명훈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서는 꿈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거예요.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가 선보일 곡은 강렬한 첫 도입부로 친숙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호탕하고 화려한 대곡 같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곡이다.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는 ‘하나의 곡에 담긴 다양한 감정과 여러 가지 매력을 관객분들께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피아니스트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작곡가의 의도를 최우선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연주자,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나 개성이 더 드러나길 원하는 연주자 등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곡을 신봉’했었던 박재홍은 젊은 작곡가들과의 만남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

“때로는 고정관념처럼 지켜온 것을 벗어나야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경험 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음악이라는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저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보려고요.”

그 어떤 수식어보다 피아노 치는 박재홍이라고 불릴 때 가장 좋다는 그는 건반 위 자신만의 음악,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쩌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일 이번 무대가 또 다른 여정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

만추, 감성 충전하기 좋은 독서 여행

붉은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으로 물든 거리 곳곳의 풍경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선선한 바람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잘 어우러진 가을은 여행과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이런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독서다. 카페, 도서관 등 가까운 곳도 좋지만,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특별한 곳에서 책을 접해보는 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7
신라상가 3층

나를 찾는 그림책 여행, 타사의 책방

과천에 위치한 타사의 책방은 주로 그림책을 다루는 책방이다. 책방 이름에는 자연을 벗하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만든 타샤 튜터(Tasha Tudor)처럼 한평생 책과 함께하고 싶은 주인장의 마음이 담겼다. 책방 안을 들어서면 공간을 가득 메운 하늘색 책장과 알록달록한 소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중에서도 예약 주문된 책이 여행 가방에 담겨있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책들의 설렘이 보이는 듯하다.

서점에서는 음료와 함께 비치된 동화책과 소설을 마음껏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서점과 달리 조용하게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롯이 책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방문을 추천한다.

타사의 책방은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특히 다채로운 모임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서점을 찾는 방문객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악어 만들기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와 인문학 프로그램까지 모두 인기가 좋다. 책방은 휴일 없이 운영한다.

#과천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forestofwisdom.or.kr

#파주

나무가 책이 되는 공유 서재, 지혜의 숲

파주출판도시는 책의 모든 출판과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열린 도서관 지혜의 숲이다. 높은 천장까지 닿은 웅장한 서가와 셀 수 없이 다양한 책이 가득한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마치 책의 숲에 던져진 느낌이다. 이곳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먼저 지혜의 숲1은 학자, 지식인, 전문가들이 기증한 도서를 소장한 공간이다. 일반적인 카테고리별 분류가 아닌 기증자별 서가를 운영해서 기증자가 평생 읽고 집필한 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거대한 책장들을 지나 안으로 꺾어 들어가면 지혜의 숲2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사들이 기증한 도서로 구성된 공간으로 출판사별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의 흐름과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널찍한 카페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커피나 차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다. 작은 유리 통로를 지나면 지혜의 숲3을 만나게 된다. 출판사, 미술관, 박물관에서 기증한 도서들로 꾸며진 공간으로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양평

가정식 예약제 책방, 산책하는 고래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용문산으로 향하는 길, 작고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 사이에 가정식 예약제 책방 '산책하는 고래'가 자리 잡고 있다.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면 온통 책 세상이다. 책들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다면, 창가 테이블에 한자리 차지하고 낭만적인 풍경을 즐겨도 좋다. 양평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산책하는 고래는 그림책을 펴내는 출판사 '고래이야기'에서 운영하는 책방이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프라이빗하게 머물다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툇마루와 뒤뜰이 있는 작고 예쁜 책방은 시골집같이 편안하여 책방에서 보낸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오롯이 나만의 여유로운 휴식과 독서를 즐기는 데 드는 책방 이용료는 6인까지 2만 원이며, 책방 예약 당일에는 별도로 1인 1책 구매를 해야 한다.

또한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며 당일 방문은 어려운 관계로 적어도 하루 전까지 예약은 필수이니 방문 전 참고하도록 하자.



Audience



Stage

프리뷰, 하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미생에서 완생으로 무르익는 클래식의 향연

프리뷰, 둘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THE NEW BEGINNING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프리뷰, 셋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본(本)>
시대를 초월한 우리네 정서를 몸으로 그리다

리뷰, 하나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당신의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을 담고 있나요?

리뷰, 둘
파보 예르비 &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연주자의 신뢰가 빚어낸 '시벨리우스 감동'

On Stage

*무대를 채우는 공연, 공연의 감동을 전하는 시선

미생에서 완생으로 무르익는 클래식 향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시간이 흘러도
늘 새롭게 들리는
마스터피스**

경기필하모닉이 깊어가는 가을,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2022년의 네 번째 마스터피스 시리즈인 이번 공연은 더욱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해 무대를 한층 빛낼 예정이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그리고 지난해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4개 부문 특별상을 석권한 박재홍이다.

먼저, 10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선보일 곡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Symphony no.6 in b minor 'Pathétique', op.74)이다,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인 '비창'은 자기 자신도 모든 작품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탄탄한 구조 속에서 극적 긴장과 섬세함이 빛을 발하며 차이콥스키 관현악의 진수를 담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1번부터 5번까지의 교향곡은 공통적으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반면 '비창'은 인생의 공포, 절망, 패배 등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비극의 정서를 특정한 사건이나 개인의 감정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비창'은 특히 탁월한 해석으로 호평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정명훈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향과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을 발매하기도 했다. 연주뿐 아니라 지휘자로서도 정명훈은 그동안 수많은 교향악단과 '비창'을 공연했기에 경기필하모닉과 함께할 이번 무대에서는 과연 어떤 하모니를 들려줄지 기대를 모은다.



경기필하모닉이
10월 9일(일), 10일(월)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 그리고
떠오르는 신성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명곡을 연주한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찾아온
선선한 바람처럼
선물 같은 음악을 선사할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붉게 물든 단풍과
황금 물결이 손짓하는
가을이 가기 전
경기필하모닉이 들려줄
클래식 선율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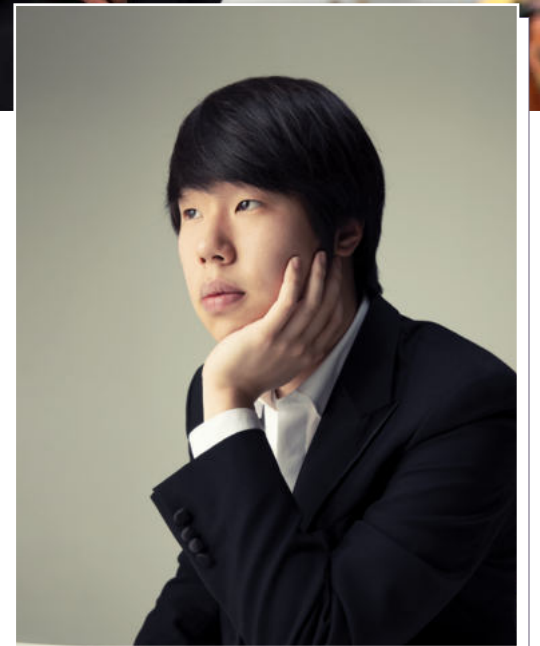
**한국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의
만남**

'비창'에 이어 10월 10일에는 차이콥스키의 또 다른 명곡인 '피아노 협주곡 1번' (Piano Concerto No.1 in b minor, Op.23)이 관객을 기다린다.

현존하는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곡이다. 호른과 피아노의 강렬한 화음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3개의 악장을 통해 웅장한 구상과 화려한 색채, 차이콥스키 특유의 소박한 취향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경기필하모닉의 첫 호흡과 더불어 지난해 5월 'Five for Five'에 이어 다시 한번 재회한 경기필하모닉과 박재홍이 이틀간 들려줄 한층 더 무르익은 선율 역시 이번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관람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세대를 뛰어넘은 두 예술가와 세계로 뻗어가는 오케스트라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만드는 하나의 무대.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박재홍 그리고 경기필하모닉이 얼마나 깊이 있는 음악적 대화를 함께 나눌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IV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일시 10월 9일(일) 17시, 10월 10일(월) 17시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롯데콘서트홀
연락처 031-230-3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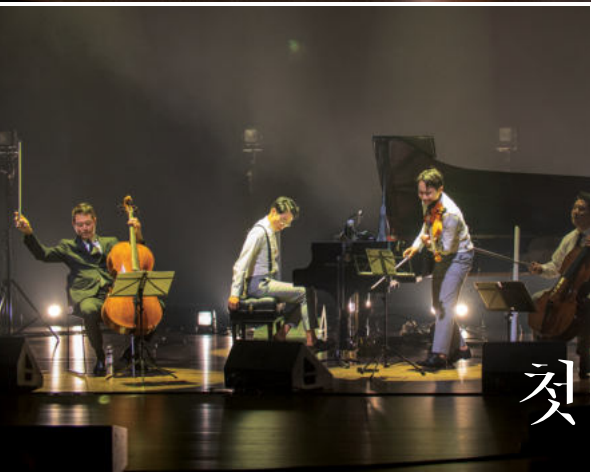
GYEONGGI CHAMBER MUSIC FESTIVAL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
경기실내악축제가 침체된 예술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속하고자 새롭게 도약한다.
바로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
The New Beginning>!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서 펼쳐질
이번 페스티벌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축제’에 걸맞게
연주회 뿐 아니라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The New Beginning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소리들

다양한 악기와 연주자 구성
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하모니를 사랑하는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7일간의 대극장 공연은 10월 10일 <New Beginning>으로 문을 연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김계희,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이호찬, 더블베이스스트 유이삭,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 바수니스트 이은호와 호른리스트 유해리, 그리고 목관 앙상블 가온퀸텟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오프닝 공연답게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슈베르트 ‘8중주 F 장조 작품번호 803’, 모차르트 ‘환상곡 F 단조 작품번호 608’ 등의 레퍼토리로 유려한 화음을 선사한다. 11일은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이호찬, 더블베이스스트 유이삭, 클라리네티스트 조성호, 바수니스트 이은호와 호른리스트 유해리, 그리고 목관 앙상블 남양주 필하모닉 아띠가 그 열기를 이어간다. 베토벤 ‘7중주 Eb 장조 작품번호 20’, 프란츠 단치 ‘목관5중주 Bb 장조 작품번호 56 제1번’ 등 <Opening Fanfare>라는 제목에 걸맞은 화려한 구성과 하모니가 돋보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도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예술가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자 페스티벌에 참여할 연주단체를 모집했다. 선정된 연주단체는 각각 대극장 정규공연과 야외 버스킹 무대에 오르게 된다. 특히 정규공연 참여자로 선정된 목관 5중주 단체 ‘가온퀸텟’과 ‘남양주(NY) 필하모닉 아띠’는 각각 10월 10일과 11일 대극장 공연과 더불어 10월 16일에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단독 무대에 오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
The New Beginning>



일시 10.10(월) ~ 16(일)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소극장·지하 카페G 앞 열린 무대
연락처 031-230-3264, 3408



새로운 시작,
새로운
클래식 축제

축제의 3일 차인 12일, <1,2,3,4>에는 첼리스트 이호찬,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후미야키 미우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비올리스트 김상진, 이번 축제의 예술감독인 첼리스트 송영훈이 무대에 오른다. 가스파르 카사도 ‘첼로 독주를 위한 모음곡’, 쇼스타코비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등 현악과 피아노의 선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무대는 <Fancy Meeting Kodaly and Brahms?>, <All About Cesar Frank>, <String For Strings> 등 각각의 부제에 맞게 브람스, 세자르 프랑크의 음악을 재조명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음악 세계에 빠져드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대망의 마지막 날인 16일의 대극장 공연 ack To Life! With Three 는 바흐(Bach)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 단조 작품번호 1043’, 베토벤(Beethoven) ‘삼중 협주곡 C 장조 작품번호 56’, 브람스(Brahms) ‘이중 협주곡 A 단조 작품번호 102’ 등 이른바 3B의 음악과 함께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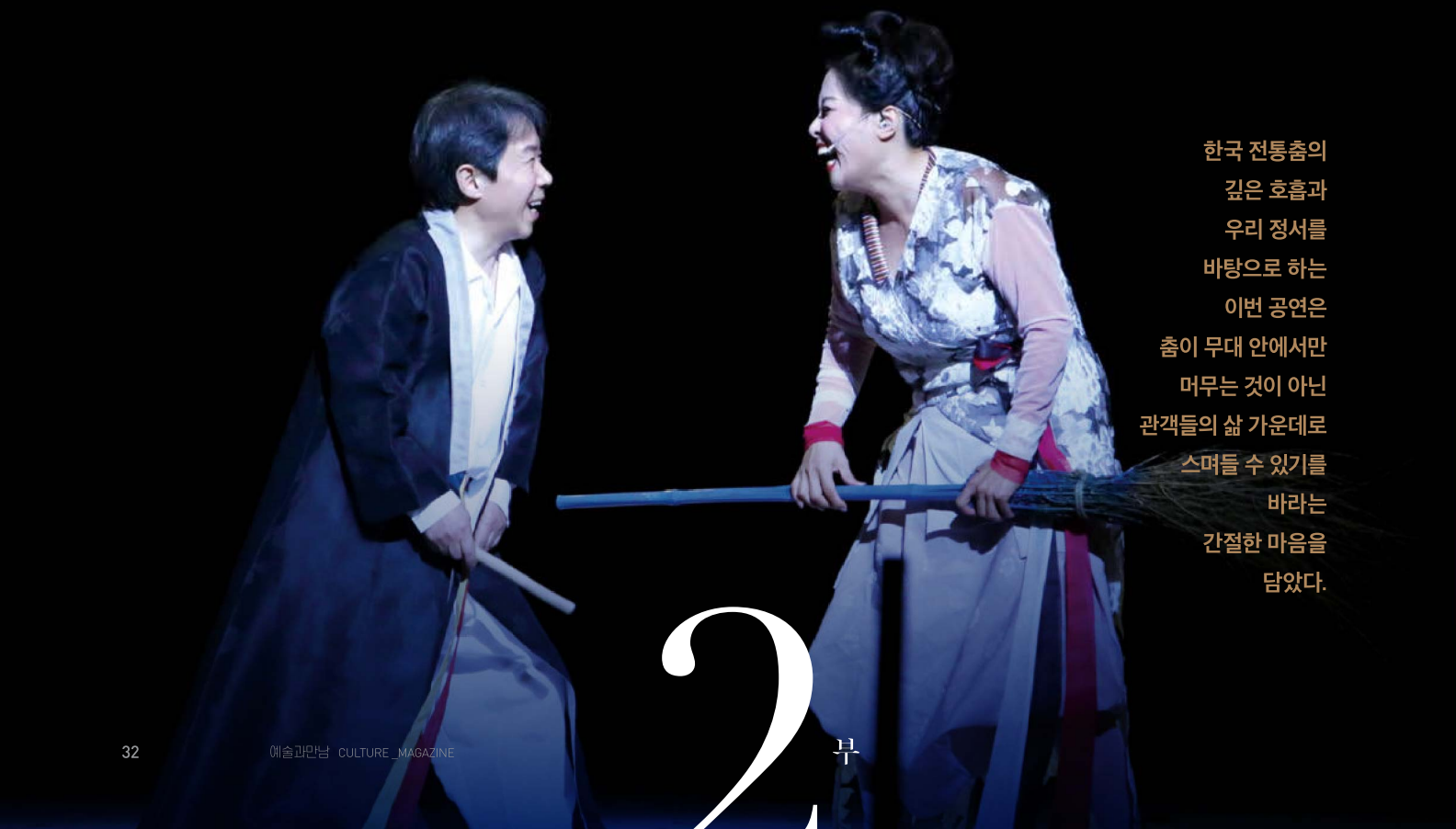
대극장 공연 외에도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다양한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두 개의 소극장 연주회와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 그리고 푸드트럭이 있는 광장축제가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10월 15일과 16일 주말 공연은 지하 열린 무대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되어 어린 아이들부터 나들이 시민까지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야외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버스킹 팀의 연주를 통해 축제의 다양성을 더하고자 했다. 어느때 보다 풍성한 음악의 향연이 펼쳐질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새롭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무용단이
오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레퍼토리 시즌 작품
‘본(本)’을 선보인다.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본(本)>

시대를 초월한 우리네 정서를 몸으로 그리다



한국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우리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번 공연은
춤이 무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관객들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경계와 장르를 허무는 확장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해원
신윤복의 <무녀신무>와 단원
김홍도의 <무동도>가 춤으로

재현된다. 경기도무용단의 <본(本)>은 두 작품에 담긴
전통의식과 문화가 한 무대에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
지는 특별한 공연이다.

공연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진다. 1부는 2018 대한
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자인 노정식 안무가의
‘제(祭)’, 이어지는 2부는 2019년 경기도무용단 ‘공전’에
서 함께한 안무가 고블린파티의 ‘흥(興)’이다. 현대 무용
가로 활동하고 있는 두 안무가는 한국무용을 기반으
로 하는 경기도무용단의 무용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 외연을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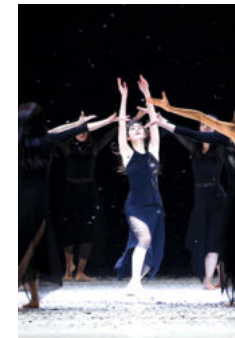
1부 제(祭)는 무당의 굿 장면을 표현한 <무녀신무>를
현대적인 춤으로 그린 무대이다. 정성과 소망의 집약
체인 제(祭)를 그려내기 위해 모듬북, 태평무, 아박무,
검무, 우리 전통춤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한국적인 제
의식의 변주가 미니멀하게 펼쳐진다. 2부 흥(興)은 여섯
악사들과 춤추는 소년(무동)의 신명나는 한때를 포착
한 풍속화 <무동도> 속 조상들의 흥을 무대로 끄집어
낸다. 다소 무겁고 진중한 1부와 달리 풍자와 해학
으로 극을 채운 것이 포인트, 사물놀이의 흥겨운 장단
을 듣고 있노라면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새롭고 젊은 감성의 한 무대 두 작품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

하는 노정식 안무가와 사회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경
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애쓰는 고블린파
티의 작업은 자칫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화 작품
에 자신들만의 색채와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
는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두 안무가의 렌즈를 통해 들
여다보는 이색적인 작품해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
고 있는 관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소통과 공감을 불
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역동감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경기도무용단이 선보일 한 무대 두 작품은
차별화된 움직임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작품은 특히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JTBC 팬텀싱어 시즌3의
만능 소리꾼 고영열과 제15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
연상에 빛나는 배우 홍지민이 각각 1부와 2부에 출연
한다. 두 아티스트는 작품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부각
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새롭고
젊은 감성이 집약된 본(本)은 기존 한국무용이 가진
색채와 정서, 그리고 호흡에 시대상을 담아낸 몸짓
으로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경기도무용단
<본(本)>



일시 11.26.~27. 16:00~17:4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311~3314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당신의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을 담고 있나요?

같은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하는 관객들을 일컬어 '회전문 관객'이라고 부른다. 기자는 '회전문 관객'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번 본 작품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가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반드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는 어느 시골 마을의 단관극장을 배경으로 한다. 폐관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영화관과 이 영화관을 운영해온 조씨 삼부자 그리고 이들과 동고동락한 이웃들의 삶을 그린다. 정의신 작가와 구태환 예술감독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겼다.

친구 조원우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신태호. 태호는 원우를 도와 극장 정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만 원우는 '일이나 해', '말 조심해'라며 피하기 일쑤다. 두 사람의 날 선 대화를 듣다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 맞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다. 작품은 극의 초반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기자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린 작품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작품은 예상을 기분 좋게 빗겨가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매끄럽게 풀어낸다.

영화관을 들락날락하며 조한수와 친분을 다져온 김정숙은 겉으로 보기엔 명랑한 이웃집 아주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치매 노모를 혼자 돌보며 때로는 육체적 상처를 입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물 한잔 드릴까요?'라며 넉살 좋게 웃어보이는 극장 직원 송희원은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친구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앓고 있다. 당장이라도 헤어져야 할 것 같은 연인임에도 희원은 선뜻 이별을 결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토끼 인형 탈을 뒤집어쓴 영사실 담당 직원 박수영은 극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세상 누구도 상처없는 인생은 없다

폐관 전 마지막 상영을 앞둔 레인보우 씨네마. 극장은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추억을 간직한 기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할아버지 조병식이 처음 문을 열고 그의 아들인 조한수가 정성껏 운영을 해왔지만 재개발의 바람 앞에서는 이들의 진심도 소용없었다. 각종 편의, 오락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의 등장에 마을의 사랑방과도 같았던 레인보우 씨네마는 폐관을 결정하게 된 것.

등장인물들은 마지막 상영과 폐관 기념 잔치를 준비하며 극장에 얹힌 추억과 자신이 가진 상처를 들려준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원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입을 다물거나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다. 병식이 앨범을 보면서, 또 옛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럼 없이 원식을 입에 올리면 이내 원우 또는 한수가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 마시라'며 큰 소리를 낸다. 태호는 도대체 원식이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토록 쉬쉬하는지 궁금해한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원식'이지만 극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원우의 동생 원식은 학교폭력의 희생자로, 조씨 3대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저버린 원식에 대해 마음의 빗을 안고 있다. 저마다 '원식이 아플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며 자책한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베일에 싸인, 아니 인형 탈에 싸인 인물 '수영'의 정체도 밝혀진다. 수영은 원식의 학교 동창으로, 원식이 폭행에 시달릴 당시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친구였다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다.



글 — 김유진 (중부일보 문화부 기자)

공연과 책을 사랑하는 '덕후'입니다. 클래식부터 대중 음악까지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살아있다면, 살아간다면 희망은 있다

학교폭력, 동성애, 치매노인 병간호, 데이트폭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야기들이다. 동시에 선뜻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주제들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의 희생자들은 더 큰 보복이 돌아올까 걱정해 자신의 피해를 숨기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은 사람들의 편견에 자신들의 사랑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기도 한다. 작품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원식은 가족 중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으며 정숙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도 이웃들에게 모친의 병세를 말하지 못한다. 주인공 원우 역시 자신의 연인인 태호를 '아르바이트 선배'라고 돌려대기 바빴다.

이들의 상처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서로에게 날 선 말로 상처를 주고 진실을 숨겨왔던 가족, 이웃들은 허심탄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극장 주인에서 마트 주차요원으로 취직한 한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희원 등의 모습은 마치 관객들에게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금기시하는 주제들을 불편하지 않게 다루면서도 관객들에게 사회문제와 편견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한다. 그동안 너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있지는 않았는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다만 극중 중년 여성 캐릭터로 등장하는 정숙과 2030세대로 추측되는 수영의 갑작스런 사랑 이야기는 의문을 자아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서로를 사랑해야 했는지 쉽게 설득이 되지는 않았다.

무지개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색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다. 처음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 다가오는 감동의 색이 다르다. 관람을 거듭할수록 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색을 보게 된다. 이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매력 때문일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볼만한 작품으로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



지휘자와 연주자의 신뢰가 빚어낸
'시벨리우스 감동'

파보 예르비 & 에스토니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미미미미미미 파파파 솔솔솔~ 미미미미미미 파파파 솔솔솔~미미미미~미미미미~’
(D장조 기준) 지난 9월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마에스트로 파보 예르비의 부드러운
손짓에 맞춰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1악장 현악파트의 반주형 도입부가 시작됐다. 여러
고 유려하면서도 입체감 있게 들리는 현의 소리는 앞서 3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을 감동으로 물들인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연주 못지않은 명연을 예고케 했다.

내한 공연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이날 공연은 9월 3일 서울과 4일 통영에 이어 사흘 연속 이어지는 ‘파
보 예르비 & 에스토니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의 마지막 무
대였다. 서울·통영 공연과는 달리 2부 메인 곡으로 차이콥스키 5번이
아니라 시벨리우스 2번이 연주됐다. 시벨리우스를 즐겨 연주하는 에스토니아 출신 지휘 명장이 이 작품을
어떻게 들려줄지 궁금해 첫날 서울 공연장에 이어 수원 경기아트센터를 찾았다.
첫날도 그랬지만 이날 연주하는 모습에서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얼마나 예르비를 존경하고 신뢰하는지,
그와 함께하는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는지 느껴졌다. 특히 예르비와 현악 파트 간 호흡이 돋보였다.
예르비는 1부와 2부를 각각 에스토니아 작곡가들의 현악 오케스트라 작품들로 열었다.
1부엔 아르보 패르트의 ‘벤저민 브리튼을 기리는 성가’, 2부엔 에르키 스벤 튀르의 ‘집자가의 그늘에서’를
들려줬다. 음악의 결은 다르지만 둘 다 서정성을 갖춘 경건한 음악이었다. 지휘자의 손짓과 동작에 거의
하나가 돼 움직이는 현악은 다채로운 음색과 변화무쌍한 다이내믹으로 빛어내는 섬세하고 풍성한 음악
으로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탁월한 완급 조절과 현악의 양상볼 돋보여

1부 메인 곡은 이 악단의 단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트린 루벨과
첼리스트 마르셀 요하네스 키츠가 솔리스트로 나선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이었다. 독주자들과 오케스트라의 양상볼이 돋보
였다. 독주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일원처럼 지휘자의 템포와 동작에 맞춰 연주했다. 각자의 개
성을 드러내기보다 양상볼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같은 곡을 사흘 연속 연주해서 그런지 첫날에
비해 독주자들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다. 솔리스트 간 살짝 어긋나고 흐트러지는 대목들이 있었다.
독주자들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며 시벨리우스 2번 연주를 위한 진용이 갖춰졌다. 예르비는 확고하
게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후기 낭만주의의 풍부한 색채와 작곡가 특유의 북유럽 정서가 담긴 선율
이 가득한 작품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었다. 역시나 현악이 빼어났다. 더블베이스의 진중한 저음을 비
롯한 현악기들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양상볼이 목관과 호른 등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튼튼하게 깔아줬다.
예르비는 폭넓은 완급과 다이내믹 조절로 극적인 표현을 탁월하게 이끌어냈다. 3일 차이콥스키 5번
연주처럼 시벨리우스 2번도 악장 간 쉼 없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연주했다. 첫 반주 음형이 찾아
들며 1악장이 마무리될 무렵 왼손을 반씩 들어 2악장의 시작을 알리는 팀파니가 바로 울리도록 신호
를 보냈다. 2악장과 3악장도 잠깐의 사이를 두고 바로 이어 연주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처럼 음악적
으로 이어지는 3악장과 4악장의 연결도 극적인 효과를 부각했다. 2악장 중간쯤부터 관악 파트의
양상볼이 종종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존중과 신뢰로 음악의 진정성을 더하다

예르비는 끝까지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으로 고양감 넘치는 피날레를 이끌어냈다. 다만 고된 투어 일정 탓인지, 4악장 후반부에 맹활약하는 금관 파트가 후반부에 힘에 부쳐 보였다. 마지막 '아멘 중지'에서 '아~'에 해당하는 음에 이어 '멘~'을 연주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거의 한 마디 가까이 쉰 것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잔향이 부족한 공연장의 음향 환경 탓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처음부터 이를 감안하고 들었음 에도 마지막에 오케스트라와 홀이 제대로 공명(共鳴)했더라면 장엄한 피날레의 감동이 더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객석에 빈자리가 많았던 점도 아쉬웠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앙코르곡까지 최선을 다해 연주했다. 앙코르곡은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정교한 강약 조절과 밀도 높은 앙상블로, 풍부한 표정이 살아 있는 '슬픈 왈츠'를 들려줬다. 예르비도 흡족한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악장과 첼로 수석 등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하는 데 진정성이 느껴졌다. 지휘자와 단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이 연주의 감동을 더했다. ◀

글 — 송태형

한국경제신문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 오피니언 부장, 문화부 부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문화부 선임기자로서 클래식음악, 무용 등 공연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예술이 만난 인문학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림이 왜 예술일까?

트윅작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인간의 시대가 온다

컬처로드

친환경 시대,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힘

예술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 위기일까 기회일까

#공감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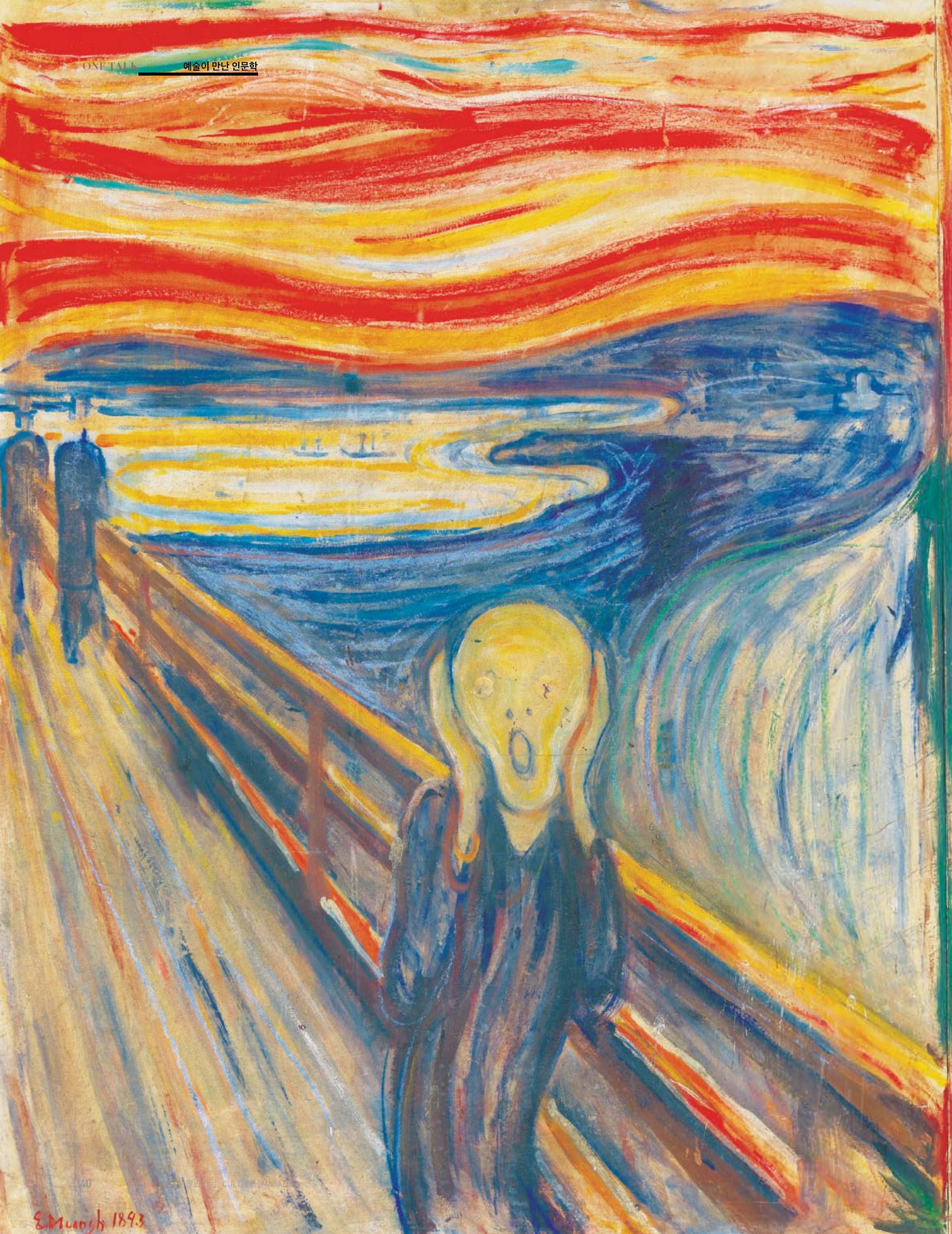
#독자참여#SNS공연리뷰

Audience

Stage

ONF Talk

*강렬하고 친근한 ON&OFF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이야기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림이 왜 예술일까?



흔히 예술이라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쾌감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몽크의 <절규>는
쾌감보다는 불쾌감을 주는
그림이다. 절망적인 모습의
인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배경은 강렬한
색채와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리를 지르는 인물 뒤로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명의 사람은
마치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

예술은 삶을 긍정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다

<절규>를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순간과, 둘째는 미래에 저렇게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지를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불구하고 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일까?

이러한 의구심은 니체의 미학을 공부하면서 말끔하게 풀렸다. 니체에게 예술의 중요성은 '얼마나 아름답고 형식적으로 완벽한가'가 아닌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다.¹⁾ 우선 니체가 말하는 세상과 인간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니체는 세상을 이루는 각각의 것들이 '힘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고 이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고통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더 자고자 하는 의지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 충돌은 고통을 낳는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머무르려는 의지의 충돌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의지들의 충돌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더 자고자 하는 의지를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 것은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힘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니체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간(흔히 초인으로 번역되는, Übermensch)은 고통의 연속인 삶을 긍정하는 자들이다.²⁾ 이들에게는 이미 겪었던,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고통을 긍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그것의 도구는 바로 예술이다.

1)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4 Bis Herbst 1885, KGW VII 3 1713], 319쪽 (Berlin New York, 1974)
2) Der Fall Wagner, KGW VI 3, 423p (Berlin New York,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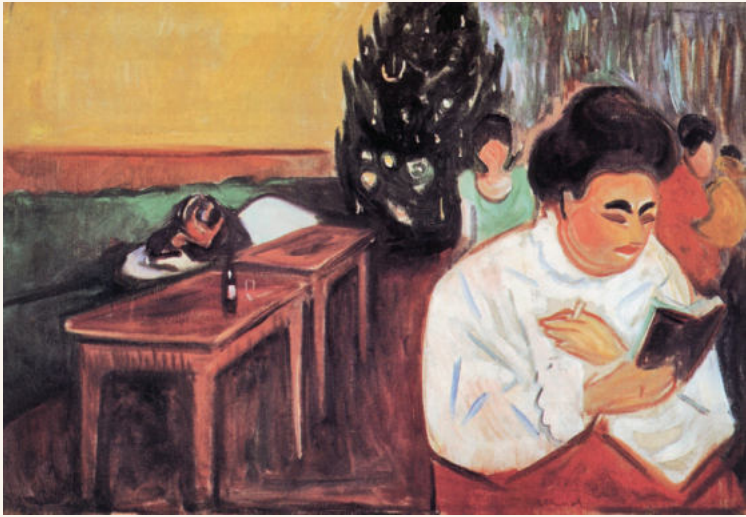


Friedrich Nietzsche(1906), Thiel Gallery

예술이 종교나 도덕보다 우월한 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삶의 고통을 긍정하고, 극복해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은 도덕이나 종교, 학문, 역사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들은 삶과 조금은 떨어져 있다. 특히 기독교적 도덕은 인간의 성적 욕망이나 부에 대한 욕망을 부정하고 억압한다. 그들은 성적인 욕망은 문란하다고 비하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땀 흘려 일한 자들만이 옳다고 말한다. 사제들은 사후 세계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육체와 지배욕을 억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적 충동과 지배 욕구는 그것을 억압하려는 의지와 계속해서 충돌한다. 결국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보다는 끝없는 고통을 겪으며 억압하거나 숨길 뿐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사후 세계(천국)의 안정을 위해 현재를 부정한다.

반면, 예술은 현재를 인정하고 어두운 감정이나 욕망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것을 통해 인생이 비극적일지라도 결국 그것을 긍정하고, 비극적 통찰과 개관을 통해 극복해내야 함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예술을 종교나 도덕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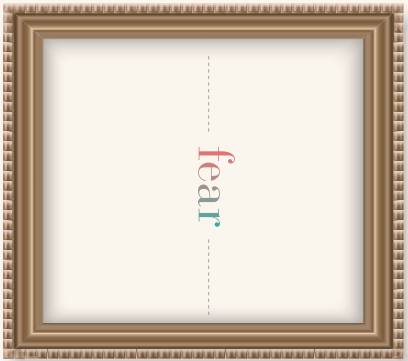


Christmas in the Brothel(1903-04), Oslo Munch Museum

몽크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니체는 예술이란 아름다움의 표본이 되는 자연이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성경 속의 세상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술은 인간 삶에서 보이는 모순과 참혹함, 죽음까지도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고통, 두려움과 마주하고 긍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

몽크는 이러한 니체의 예술철학에 크게 감명 받았다. 그의 삶 자체가 모순적이고, 고독하고, 죽음과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몽크는 만성적인 류머티즘과 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이를 병으로 잃는다. 젊은 시절 그의 사랑은 모두 안 좋은 결말로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을 맞기도 한다. 그로 인해 정신착란 증상을 겪기도 했다. 니체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몽크에게만 일어나는 선택적 비극이 아님을 설명한다. 몽크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끊임 없는 모순과 고통, 참혹함을 니체 미학을 통해 긍정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캔버스에 옮긴 <절규>를 통해 당신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삶에도 이런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사랑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몽크의 그림은 어떻게 보이는가?

니체의 미학을 공부한 뒤 <절규>를 다시 마주했을 때 감정은 이전과 많이 달랐다. 이전에 느낀 감정은 공포와 스산함, 알 수 없음이었다. 그러나 다시 느낀 감정은, 공감, 긍정, 희망이다.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은 모두 해체되고 새로운 감정들과 생각들이 풍요롭게 생산됐다.

니체는 예술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인간을 디오니소스와 같다고 말한다. 디오니소스는 갓난 아기 시절 거인에 의해 온몸이 찢겨져 죽는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고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성장한다.

몽크의 <절규>는 공포스럽고 의문적이지만, 삶에서 충분히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다. 관람자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에게 벌어진,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인 일들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람자는 비극적인 사건과 고통을 긍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해낸다. 예술은 이처럼 삶을 가감 없이 묘사함으로써 인간 삶 그 자체를 긍정하며 성장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당신은 몽크의 <절규>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



Self Portrait with the Spanish Flu(1919), National Gallery of Norway



글 — 염호근

예술, 미학 전문 유튜브/브런치 채널 '예술호근미학' 기획자. 예술과 미학을 사랑하는 덕후, 예술과 미학은 더 나은 삶의 도구임을 믿고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인간의 시대가 온다

가상인간과 진짜 인간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이들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진짜 사람처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노래하고, 광고를 비롯한
대중문화 속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인간'에 대해
짚어보자.

Virtual

생활 속으로 스며들며 경계를 지우다

실제 인간과 흡사하게 구현된 가상인간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 가상인간 가수 아담이 등장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제 인간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등장해 '가상인간'이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인간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구현되고 있어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인간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다는 점과 메타버스 콘텐츠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가상 인간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며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인간과 비슷한 외관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이 행하는 행동을 동일하게 구현해 실제감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인간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상인간 또한 어느 실제 인간과 다름없이 셀카는 물론 소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는 공간으로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마다 친근감을 조성하는 텍스트 활용은 실제 존재하는 인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대중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중들에게 가장 먼저 주목받고 활발하게 활동한 신한라이프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의 매력 또한 이러한 인스타그램 콘텐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상인간 중 유명 인플루언서를 지칭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화제성, 신선함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SNS 이미지 콘텐츠 및 TV CF에 콜라보레이션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인간으로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는 점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특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 — 박영락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회장/더콘텐츠연구소장. 디지털
소통 칼럼니스트로 기업(관) 디지털 소통효과 평가, 교육,
컨설팅과 함께 서적출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첨단 기술과 만나 활동 영역을 넓히다

최근 가상인간은 보다 정교해진 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제 가상인간은 AI를 활용해 목소리까지 갖추며 시각적인 자극에서 나아가 청각적으로도 어필할 포인트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인간의 활약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에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단순 모델을 넘어 브랜드 세계관 구축, TV프로그램, 웹드라마 등 다방면의 디지털 콘텐츠 속에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색다른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로는 '무신사' 브랜드를 꼽는다. 무신사는 다양한 브랜드의 패션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편집숍으로, 다채로운 모델 고용과 홍보가 마케팅 승부수다. 이에 무신사는 배우 유아인과 닮은 가상인간 '무아인'(무신사와 유아인의 합성어)을 제작해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아인은 패션 카테고리에서 시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펼쳐며 무신사만의 세계관을 구축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가 개발한 가상인간 '이슬'은 특정 브랜드와 콘텐츠 품에 제한받지 않는 엔터테인먼트이자 셀레브리티로 활약하고 있다. 그 가운데 네이버 쇼핑 라이브 콘텐츠에서 쇼호스트로의 첫 행보를 통해 마케팅 수단에서 나아가 주체로서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JTBC의 음악 예능프로그램 '뉴페스타'에서 고정 출연진으로 활동하며 가상인간 활동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

시각특수효과(VFX) 콘텐츠 전문기업 텍스터의 버추얼 휴먼 프로젝트 계열사는 가상배우 '민지오'를 선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가상배우 '민지오'는 웹드라마에 출연하며 가상인간의 첫 연기 도전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가상인간의 활동영역은 앞으로도 지속 확장될 전망이다.

활용 보다 명확한 규범 마련이 우선

올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콘텐츠 <2022 문화유산 여행가>에 가상인간 패밀리 '호, 곤, 해일'이 출연진으로 등장했다. 실제 문화유산 방문을 유도하는 본 목적이 있음에도 가상인간을 등장인물로 선정한 계기가 주목된다. 해당 콘텐츠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송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인간에 대한 MZ세대의 전 세계적인 관심과 호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인간의 활용이 단순 화제성만 반영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가상인간은 메타버스와 연계가 용이해 <2022 문화유산 여행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에서 해당 방문 거점들의 방문코스를 공개하고, 가상인간 3남매를 찾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대중들과의 비대면 접점을 늘리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콘텐츠 확장성을 가능케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가상인간 기상캐스터를 활용한 뉴스를 진행하여 주목받았고, 포항시는 가상인간이 등장하는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가상인간은 업계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관)에서 활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가상인간 콘텐츠는 그 자체로 이목을 끄는 소재이나, 다양한 콘텐츠에서 노출되는 만큼 앞으로 신선함은 오히려 반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상인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나 인지도에 기대는 것에서 나아가 가상인간을 활용하는 목적에 대한 명확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순 유행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새로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상인간의 역할 재조명과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Influencer



친환경 시대,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이자 힘일 것이다. 지구촌에서 다양한 작가들이 창작하는 환경미술, 생태미술 작품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사례를 살펴 보았다.

침묵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1962년 생물학자 레 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에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녀는 책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면 새들조차 살 수 없는 침묵의 봄이 오게 된다는 경고를 담았다. 나아가 듀폰 등 화학업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DDT¹⁾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DDT 사용의 중단을 성공시켰다. 침묵의 봄은 오늘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과학계와 세계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는 20년 전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며 1,000회 이상의 강연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활동을 하였고,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환경오염과 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인과 각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셉 보이스
<7,000그루의 참나무> 퍼포먼스



1) 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의 약자로 염소 성분과 불이 들어있어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분류되며, 곤충이나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세 코랄 리프 프로젝트 <산호초>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술의 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예술인들이 환경보전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곳곳 많은 자연미술, 환경미술, 생태미술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각 분야별 작가들은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술에 환경운동을 도입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인 요셉 보이스는 1971년 습지액션(Bog Action)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습지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7,000그루의 참나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시 카셀에 참나무를 심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요셉 보이스가 심은 7,000그루의 참나무는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처럼 예술은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The Great Barrier Reef)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이다. 그러나 수온의 상승으로 인해 푸른 산호초들이 대규모 백화현상으로 하얗게 변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크리스틴과 마가렛이라는 로컬 작가들은 2005년부터 코바늘 뜨개질로 제작한 산호초 모양의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크로세 코랄 리프 프로젝트(Crochet Coral Reef Project)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000명의 지역주민이 뜨개질로 만든 작품이 제작, 전시된 바 있다. 이처럼 소수의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 활동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모으며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다.

**미래를 바꾸는
생각의 전환**

2021년 5월, 60마리의 코끼리가 런던 그린 파크에 있는 피카딜리와 버킹엄 궁전 사이를 활보하였다. 그리고 런던의 도심 곳곳에는 9개의 코끼리 무리가 시가지를 행진했다. 이것은 물론 진짜 코끼리가 아니라 비영리 환경단체인인 상생(CoExistence)과 코끼리가족(Elephant Family)이 협력하여 인도 잡초로 만든 인조 코끼리 모형이었다. 코끼리 도심 행진 퍼포먼스는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도 원주민 문화를 장려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 전역의 풀뿌리 환경보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양한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은 이와 같이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의 실천을 이끌고 있다.



상생·코끼리가족
<코끼리 도심 행진> 퍼포먼스

멕시코 시티에서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하층민을 페페나도레스(Pepenadores)라고 부른다. 재활용품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덴마크 작가 토마스 담보는 페페나도레스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고아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3톤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수천 개의 꽃, 나무, 동물상으로 가득한 '미래의 숲'은 멕시코 시티 차폴테펙(Chapultepec) 식물원에서 전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쓰레기를 예술작품에 재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이 쓰레기를 추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이 작가 작업의 주요 화두이자, 쓰레기를 재활용해 미래의 숲을 만든 이유이다.



토마스 담보-페페나도레스 외 <멕시코 미래의 숲>



벤자민 본 윙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가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의 역할**

2022년 3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는 2024년 협약이 완성되면 플라스틱의 폐기물에 대한 각국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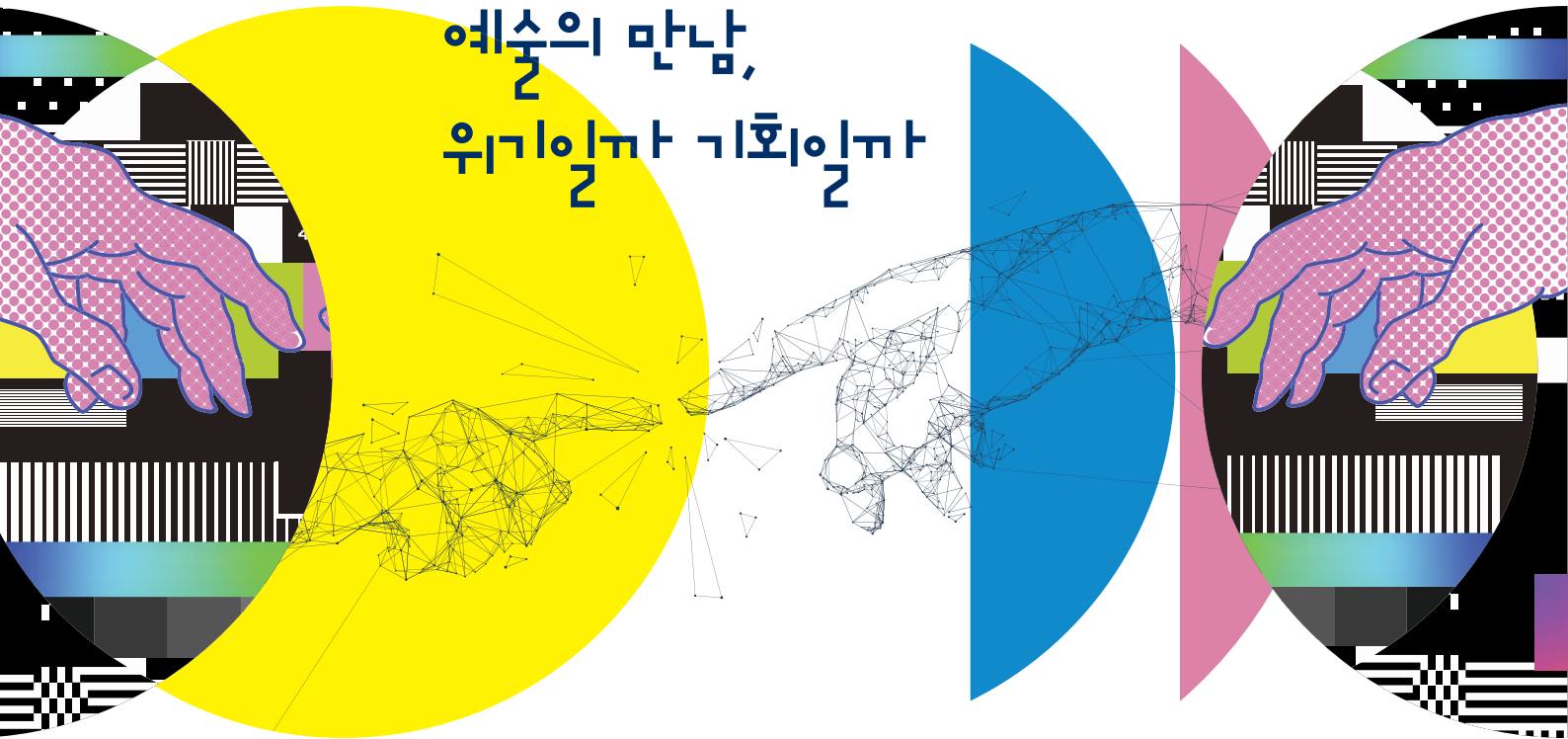
이 같은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인 2018년 벨기에의 미술전, 브뤼즈 트리엔날레(Bruges Triennial)를 기념해 미국의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카(STUDIOKCA)는 태평양에서 수거한 5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11m가 넘는 대형 고래상을 제작했다. 전 세계 도시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안을 뒤덮고, 해양동식물이 멸종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설치작품의 제작 의도였다. 이는 대표적인 공공예술 작품으로 고래를 구성하고 있는 쓰레기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우리가 사는 도시로부터 흘러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유엔환경총회 당시 회의장 앞에서는 환경운동 작가 벤자민 본 윙이 제작한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가라'라는 작품이 전시되었다. 9m 높이의 작품은 수도꼭지에서 플라스틱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해 재활용과 청소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이 제조되는 수도꼭지를 잠가서 플라스틱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술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처럼 환경과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과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

글 — 변재진

아트매거진 홍익미술 대표·편집인으로 전시기획, 미술잡지 발행, 관광개발 프로젝트 기획, 동양화 작가, 여행사진가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예술의 만남, 위기일까 기회일까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는 시대에 이르러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 본 글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을 구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 예술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경쟁 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구 삼아 인간 예술을 위한 더 나은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자동차에서부터 진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 놀라운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속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혹은 게임에서 인간을 이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의 분야를 주장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성의 마지막 보루인 창작과 창의성의 분야에 도전하고, 그 성과를 내보이면서 이제 인간만의 고유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예술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음악, 이야기 등을 창작해내는 분야로,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수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세상에 없던 창의적인 것을 생각하고 구현해내는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도 얼마 못 가 깨어지고 말았다. 인공지능은 이제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예술가가 하듯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고, 기존에 없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언어로 시를 짓기도 한다. 과연 어떻게 기계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

인공지능과 예술 창작에 관한 가장 최근 이슈는 바로 미드저니(Midjourney)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이 작품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의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제이슨 앨런의 이야기이다.¹⁾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글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나 대상의 모습을 입력하면, 그 입력 글에 맞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에 '파란 방에 놓인 노란 화병과 검정 고양이'를 입력하면, '파란 방', '노란 화병', '검정 고양이'라는 세 요소가 들어간 다양한 종류의 그림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러한 방식, 즉 인간이 자연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자연어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형태(그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비단 미드저니 프로그램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²⁾ 등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들의 그림은 인간이 그린 그림과 비교할 때, 육안으로 거의 구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작품의 질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림 1. 참고³⁾)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기술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지시에 따른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주도의 예술 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어서 소개할 '창의적 적대 신경망(Cre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s)'을 활용한 인공지능 그림 창작은 인간의 구체적인 언어를 통한 지시 없이 스스로 기존에 없던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미드저니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더 '창의적'이다.



<그림 1> Midjourney를 활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제이슨 앨런)

출처: 트위터

1) Drew Harwell, Washington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2/09/02/midjourney-artificial-intelligence-state-fair-colorado/> (2022.9.10 방문)
2) OpenAI의 DALL-E 2와 Microsoft의 NuWA-Infinity 등이 있다.
3) 출처: Ahmed Elgammal and etc., 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Generating "Art" by Learning About Style and Deviating from Style Norms, arXiv:1706.07068v1 [cs.LG] 21 Jun 2017.

마침내 창의성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창의적 적대 신경망’⁴⁾은 두 신경망, 즉 생성자 신경망과 분류자 신경망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경쟁함을 통해 학습하도록 만들어졌다. 생성자 신경망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예술 스타일(예를 들어 추상표현주의나, 인상주의 등)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반면 분류자 신경망은 생성자 신경망이 만든 이미지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인간이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인공지능이 새롭게 그린 그림)인지 분류한다. 나아가 생성자 신경망이 만든 이미지가 기존의 예술 스타일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이 두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경쟁시키면(다른 말로 하면 ‘학습시키면’), 결국 분류자 신경망은 인간의 그림과 인공지능의 그림을 구분하는 기술, 그리고 기존의 인간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 스타일과 구분하거나 유사성을 찾는 실력이 늘게 된다.

반대로 생성자 신경망은 분류자 신경망을 속이기 위하여 인간의 그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기존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예술 스타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이 만들어낸 그림들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림 2 참고) 실제로 창의적 적대 신경망 기술의 개발자들은 해당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과 실제 인간의 그림을 구분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그림을 인간의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그림은 분명 우리에게 특정한 감상의 경험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위의 작품들을 보고 즐길 때, 이것들이 인공지능의 작품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저 위의 그림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향유 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품 감상은 인간의 작품이든, 인공지능의 작품이든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작품 감상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림 2> 창의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해 만든 작품

출처: Ahmed Elgammal and etc., CAN

인공지능은 과연 예술가의 적(敵)인가?

인공지능 미래의 문제를 예술에 한정하여 생각해보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를 대신할 수 있는가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가이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 마빈 민스키의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점이 온다면,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지점도 도래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막연한 미래보다는 지금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구글에서 나온 딥드림, 미드 저니 등 현재에도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은 끊임 없이 그리고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제 인간 예술가는 필요 없어지는 걸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런 일은 없을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인간 예술가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개별적인 비교의 문제이기에 하나의 답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처럼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여전히 하지 못하는 창작의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 바로 감상과 선택이다. 인간 예술가가 예술을 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 예술가에게 있어 창작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감상과 그 결과에 따른 선택이다.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한 예술의 영역 확장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있어 제1의 감상자이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감상하고,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맞춰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폐기되거나 그

대로 남겨진다.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감상이 불가하다고 해서 창의성이나 상상력과 같은 인간 고유성을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인공지능에게 감상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이것 역시 언젠가는 인공지능에게 가능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상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인간의 감상과는 차이를 갖는다. 감상의 경험이란 결국 그들의 삶의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갖는 경험은 다를 것이며, 따라서 감상 역시 서로 다른 수준과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은 작품의 창출, 즉 생산만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예술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듯이 말이다. 실제로 인공지능 예술의 한 사례로 필자가 인터뷰했던 한 작가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입시 미술을 따라하기 힘들었기에 미술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제로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그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기술로서의 ‘그림 그리는 행위’가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그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자신의 창작에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예술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예술가에게 가장 획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예술의 영역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영역을 좀 더 넓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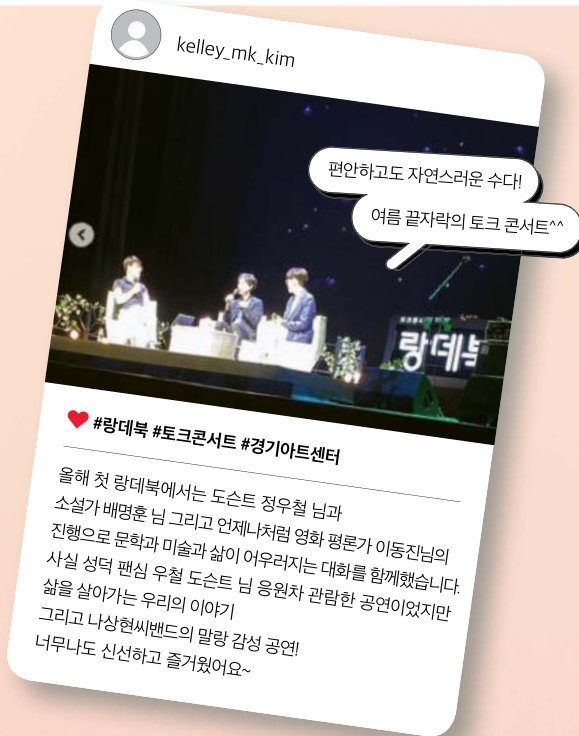
글 — 김전희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미술이론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창원국립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에 출강하며, 2022년 여수국제미술제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미술이론 연구, 전시 기획, 비평 등 미술 및 미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BIMONTHLY
F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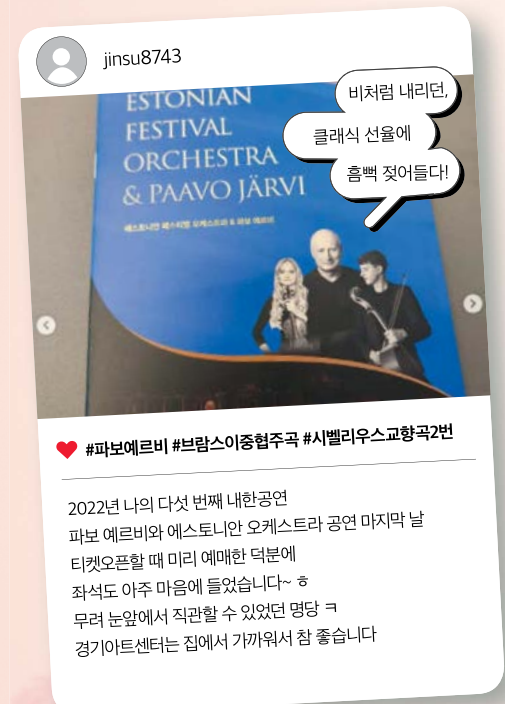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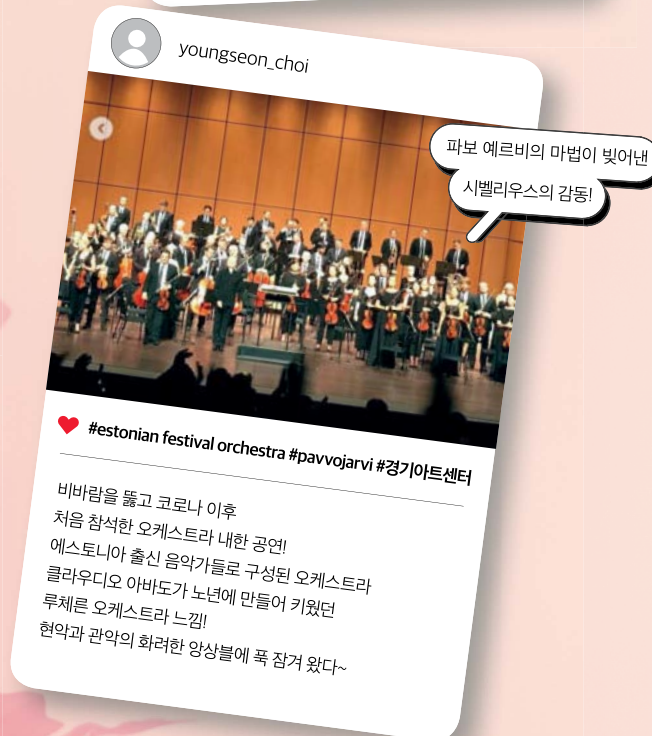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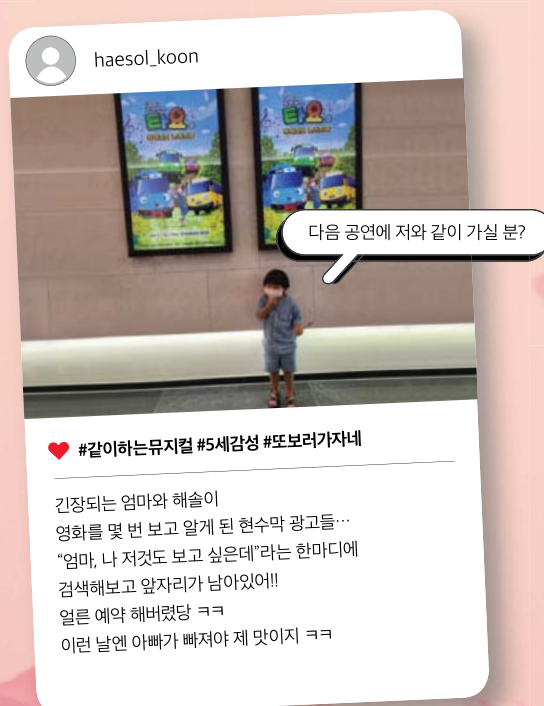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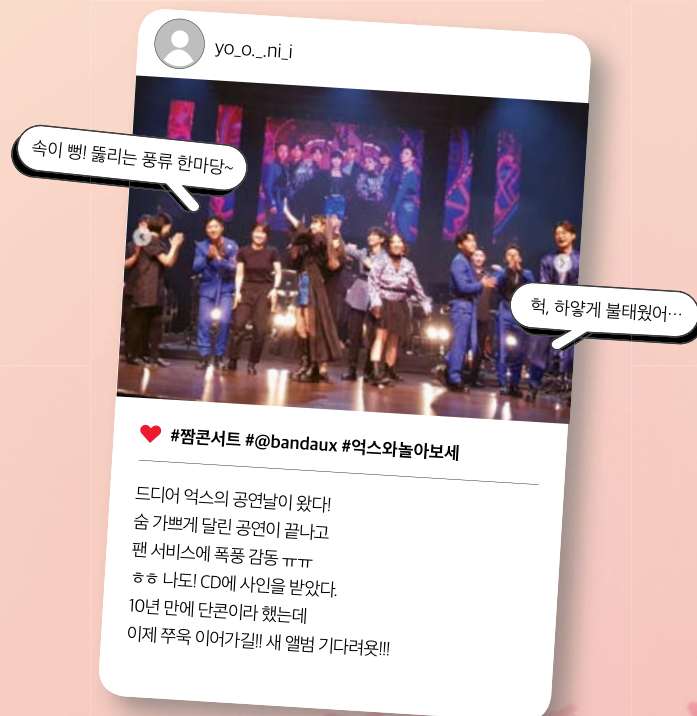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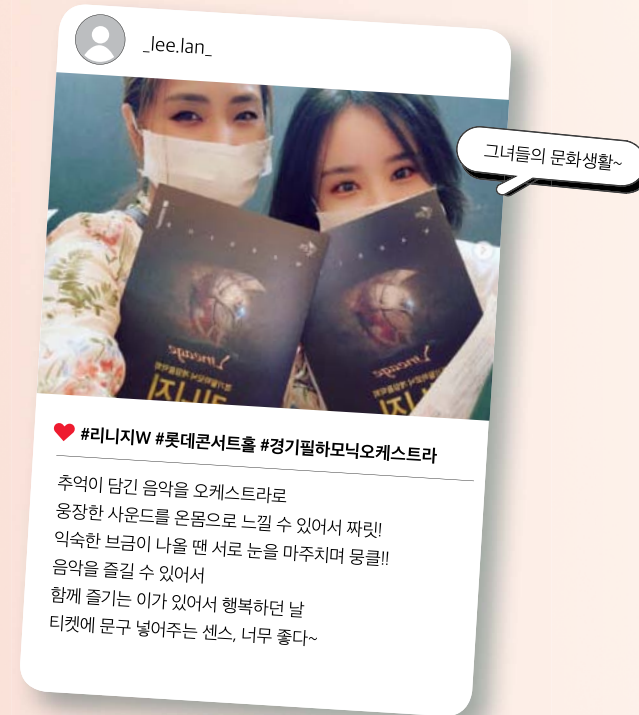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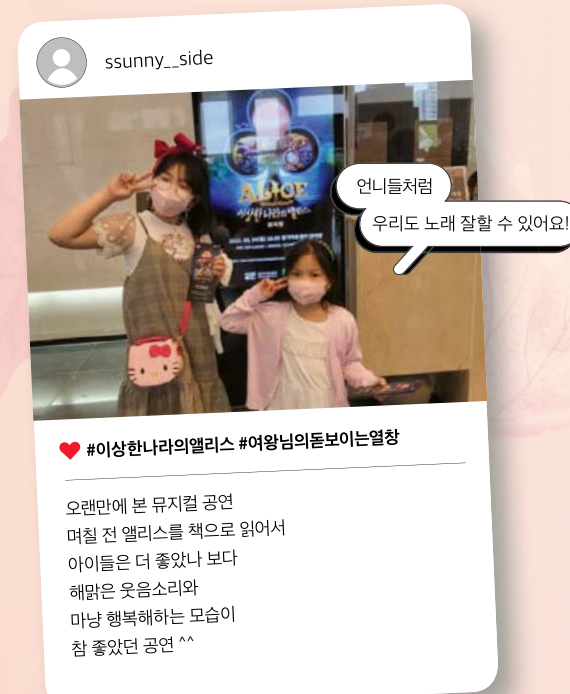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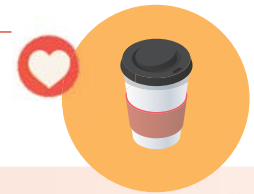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해마다 가을이 찾아오면 문득 떠오르는 음악, 추억 하나쯤 갖고 게실 텐데요. 파란 하늘 아래 노랑고 빨간 나뭇잎은 그림이 되고, 귤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멜로디가 됩니다. 충만해지는 감성과는 반대로 웬지 마음 한 편이 허전해지신다고요? 깊어지는 계절, 경기아트센터가 선사하는 질은 여운과 감동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술을 일상으로,
일상을 예술로 이끄는
아름다운 경험

GGAC ARTS ACADEMY

경기도 GGAC 경기아트센터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2022년
4분기
경기아트센터
예술강좌

2022.10.18-12.15

수강신청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www.ggac.or.kr | 문의 031-230-3273

GGAC NOW

일터와 가정을 채우는 그녀들의 행복 일기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문지혜 PD·전현희 PD

문화나눔 · 심터

<2022 경기도 예술회복 지원사업>
지역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디딤돌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캘린더

2022년 10~11월 주요 공연 일정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즐거운 탐구생활

Audience

GGAC's Pick

Stage

*바로 지금 여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일터와 가정을 채우는 그녀들의 행복 일기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문지혜 PD·전현희 PD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화려한 무대 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완성된 공연을 볼 수 없다. 여기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동반성장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경기도무용단의 기획 PD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라는 일인다역을 멋지게 수행하며 행복을 만드는 일과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빛나는
공연을 만드는
서포터

경기도무용단은 1993년 창
단된 경기도의 대표 예술단
체로서 정재, 전통, 창작무용

등 연간 100여 회가 넘는 우수한 우리 춤 공연을 통해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중동,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해외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같은 무용단의 눈부신 활약 뒤에는 모든 공연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고 돕는 기획실 PD들의 노고가 있다.

“공연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를 거쳐, 때에 따라 출연자를 섭외, 계약하고 홍보, 마케팅 과정 등 공연이 무사히 무대에 올려지도록 현장을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용단 기획 PD? 공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좁은 의미의 기획만 생각하고 단순히 그 일만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지혜, 전현희 PD가 들려준 실제 현장은 예상했던 업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무용은 세트나 의상, 조명,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복합예술 장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기획 PD의 숙명이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무대 조명과 영상 파트별 담당 감독님을 구상하고, 의상과 소품 제작업체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획 PD로서 외부 사람들과 제작진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전하는 가교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대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무용단인 만큼 기획 PD는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원보다 돋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단원 그리고 작품을 빛나게 하는 게 그녀들의 몫이다.



문지혜 PD

워킹맘의
이름으로
만드는 행복

2015년과 2017년, 입사 후
무대 뒤 공연의 모든 업무를
함께 해온 문지혜 PD와 전현

희 PD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상에도 큰 변화를 맞이했다. 결혼과 출산을 거쳐 엄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출산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돌아온 두 사람이기에 업무 적응 과정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이 분주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육아로 단련된 인내심과 정신력과 체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복귀 한 달이 된 문지혜 PD는 아이가 주는 좋은 에너지가 새로운 힘이 되어 준다고. 한편,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전현희 PD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나름의 원칙도 생겼단다.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어쩌면 일과 육아, 모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기에 이젠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육아 정보를 얻는다는 두 사람. 아이를 키워 나가는 부모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눌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무수할 듯하다.

일터에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육아와 살림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실 가장 힘든 점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은 누구나 어려운 법,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공된다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를 닮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처럼,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려는 노력 자체에서 이미 좋은 엄마이자, 성공한 워킹맘의 모습을 보았다. ◀

전현희 PD



지역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디딤돌

2022 경기도 예술회복 지원사업

경기아트센터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예술단체 및 종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22 경기도 예술회복 지원사업'을 연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공연 제작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기획공연 출연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리	편집부
사진	이성원

시대를 위로하는 예술, 예술에 힘을 더하는 손길

지난 2021년부터 경기아트센터는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연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공연제작비 및 무대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 동안 '2022 경기도 예술회복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공연단체를 공개 모집했다.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공연 작품성, 공연 수행의 적절성, 공연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된 총 30개 단체의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공연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는 발레·연극 등 프로젝트 공연을 자체 제작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대상 및 형태를 다양화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월 28일 <발레갈라콘서트>를 선보인 데 이어, 9월 16일~18일에는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이 무대에 올랐다. 두 공연 모두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경기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했다.

9월 15일, 공연을 하루 앞둔 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의 최종 리허설 현장을 찾았다. 전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이자 연출을 맡은 장용휘 감독을 비롯해, 중견 탤런트 한인수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동작 하나, 대사 하나에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다.



2022 Gyeonggi-do Arts Recovery Support Project



Gyeonggi Arts Center

Supporting Local Artists



이번 공연을 통해 오랜만에 관객과의 만남을 앞둔 배우들의 마음이 짐 역시 남다르다. “열정으로 부딪히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와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번 프로젝트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공연 제목은 침체된 공연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배우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지금의 상황과도 잘 맞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연 의상 등 소품부터 포스터와 팸플릿 역시 공연 제작 지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연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한 30개 단체 중 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2개 단체에게는 12월 혹은 내년에 재공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뉴미디어팀에서는 공연제작 지원 단체의 공연 영상 촬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영상 작업은 해당 단체의 다양한 소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예술계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과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

Mini Interview

공연사업팀 우태균 대리



예술인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예술회복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도움만을 전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달리 공연장 운영, 공연 기술, 홍보 등 경기아트센터만의 노하우를 같이 지원하여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들은 이번 공연 활동의 영상, 사진 등을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작품 활동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 분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웃고 울며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10+11
2022 Vol.158

유럽 무대에서 펼쳐진 우리 소리,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2022 유럽 투어 성료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2022 유럽 투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의 한국문화원 및 대사관에 공식 초청되어 총 5개국을 순회하며 6회의 공연을 펼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악 관현악단으로서 '대취타', '민요', '거문고산조'와 같은 전통 국악 레퍼토리부터 현대적 레퍼토리까지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유럽의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원',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체르트 하우스' 등 유럽의 유서 깊은 공연장을 찾아 현지 관객 및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한편, 중부유럽 최대 월드뮤직 페스티벌 '폴란드 바르샤바 크로스 컬처 축제(Festiwal Skrzyżowanie Kultur)'무대에 올라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럽 음악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동시대 예술과의 융합과 창의적 실험을 통해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국내외 무대에서 펼쳐낼 예정이다. 오는 10월 22일, 시나위오케스트라는 공연 <시나위일렉트로니카2- Trance>를 통해 일렉트로닉사운드와 국악의 매력적인 만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클래식과 함께 가을 나들이 즐겨요...

10월 '경기클래식페스티벌' 야외 버스킹, 푸드트럭 운영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공연 개최와 더불어 10월 14일부터 3일간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야외극장에서 클래식 버스킹 및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한다. 2015년부터 경기도를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해온 '경기실내악축제'는 올해 '경기클래식페스티벌'로 개편되어 더욱 풍성한 형태로 개최한다. 관객들은 이번 축제에서 국내외 유수의 클래식 아티스트가 펼치는 공연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이 야외 무대에서 펼치는 클래식 버스킹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대극장 앞 광장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다양한 간식을 즐기도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15일, 16일 주말 이틀간 야외 열린 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 공연이 생중계되어 남녀노소 편안하게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경기아트센터에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아트센터 '감성맞춤 인문학아카데미' 4분기 개강, 자친 일상을 위로하는 시간

경기아트센터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4분기 프로그램이 10월 18일 개강한다. 강좌는 매주 화, 목에 진행되며, 정여울 작가, 이용숙 평론가, 김규범 작가가 지난 3분기에 이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정여울 작가가 <속삭이는 그림들, 미술의 치유적 힘> 강좌를 통해 미술 작품과 심리학을 흥미롭게 다룬다. 화요일 저녁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 강좌가 준비되어있다. 김규범 작가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고전문학>을 주제로 세계 문학 작품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이용숙 평론가의 <천년의 음악여행 : 음악 속 유럽문화사> 강좌가 진행된다. 친절한 해설 및 역사 이야기와 함께 클래식 명곡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적 깊이와 흥미에 감성을 더한 인문학 아카데미의 수강 신청은 온라인(www.ggac.or.kr) 및 전화(031-230-3273)를 통해 할 수 있다. 2개 이상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40~50%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화려한 안무와 몰입감 높은 무대, 경기도극단 <맥베스> 11월 3일부터 열흘간 소극장에서

경기도극단은 오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연극 <맥베스>를 선보인다. 본 공연은 2022년 경기도극단 레퍼토리시즌 마지막 작품으로 한태숙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욕망과 탐욕 앞에 굴복하고 파멸해가는 '맥베스'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강렬한 비극으로 불리는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들끓는 인간의 욕망, 그로 인한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고독을 그린다. 맥베스 역에는 다양한 무대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전박찬 배우, 맥베스 부인 역에는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성여진 배우가 합류하여 경기도극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안무가 이경은과 무술감독 황성대가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안무로 군사훈련 장면을 채우며, 마녀의 광기 가득한 장면들과 눈앞 공간마저 한순간에 변하는 장면을 선보이며 러닝타임 동안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과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만 15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 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미안마 작가 초대전 - '치유의 순간'> 11월 9일~21일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미안마 작가 초대전 - '치유의 순간'>을 개최한다. 전시는 미안마를 대표하는 작가 총 6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미안마 특유의 문화적 요소와 아름다운 현지의 풍경을 미안마 작가들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전시는 최근 계속된 사회적 충돌과 재난으로 상처입은 미안마의 위기극복과 치유를 기원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을 저버리지 않은 미안마 예술인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전시에 참가한 미안마 작가 쯔 린(Kyaw Lin)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안마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어 기쁘다"며, "전시에서 한국 관객들은 아름다운 미안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전시는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개최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0 OC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연극 <심청전을 찾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1
2 자음지기 브라스 콰이어-여덟 번째 이야기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	3	4 	5 퓨전음악극 <수궁으로 뛰나는 상상여행>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	6	7 	8 애니메이션극 <사이보그:새민>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
9 경기필하모닉스시리즈Ⅳ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2~5	10 17:00 롯데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2~5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New Beginning>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1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Opening Fanfare>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2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1,2,3,4>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3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Fancy Meeting, Kodaly and Brahms?>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4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All about Cesar Frank>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5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String for Strings>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6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Back to Life! With 3 s!>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17 	18	19 	20	21	22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일렉트로니카2- Trance>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예술단 기획공연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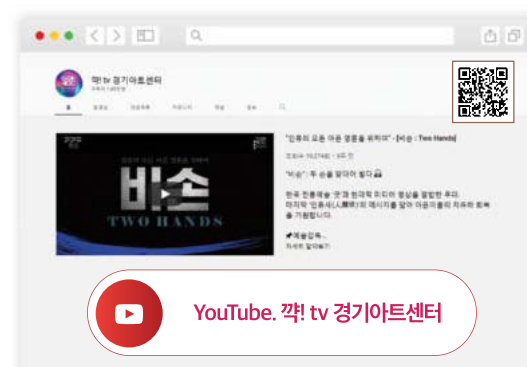
11 NOV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20: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4	5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6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7	8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20: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9	10	11	12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13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89-647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경기도무용단 <본(本)>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11~4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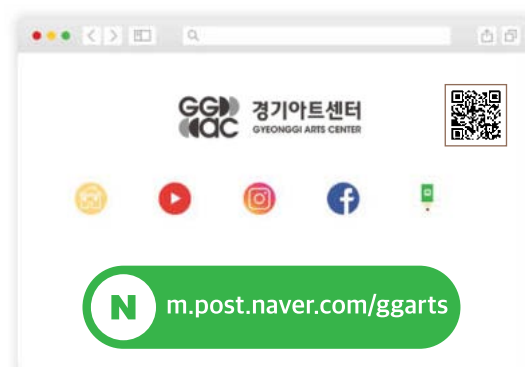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예술과만남 즐거운 탐구생활

<예술과만남>은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아티스트, 숨은 이야기, 국내외 문화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YouTube Channel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등 객!
tv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실시간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과 SNS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말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예술과 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예술감독 **원일** won IL

음악감독 **이일우** LEE ILWOO

협력창작자 라이언클래드 LIONCLAD

임용주 LIM YONGJU

해피리 | HAEPIARY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
TRANCE

2022년 10월 22일 16:00 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관람료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 예매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 및 1544-2344 • 문의 031-289-6474

WWW.GGAC.ORG.KR

